

KIA 좌완 미래 김유신·장민기 ‘믿음의 마운드’



김유신



장민기

김유신 “맞춰 잡는 피칭으로 더많은 이닝 욕심” 장민기 “혼자 잘하려는 생각 버리고 수비 믿어”



KIA 타이거즈의 좌완 미래들이 ‘믿음’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오랜 시간 왼손 투수에 대한 갈증에 시달렸던 KIA는 올 시즌 새 얼굴들로 좌완 고민을 풀어가고 있다.

“특급 루키” 이의리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비역’ 김유신도 선발 경쟁의 승자가 돼 4번째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또 다른 루키 장민기도 2군에서 영점을 조율한 뒤 11일 다시 1군에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선발과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김유신과 장민기는 앞선 등판 경험을 통해 ‘삼진’을 버리고 ‘믿음’을 얻었다.

안 좋았던 순간을 돌아보면 “혼자서 잘하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평가다.

김유신은 “처음 선발로 두 경기까지는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나 혼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제구도 흔들리고, 공이 물리면서 안타를 맞곤

했다”고 이야기했다. 장민기도 “뒤에 수비가 7명이나 있다. 선배들이 지켜주는 만큼 이제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맞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비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연히 타 삼진 욕심은 버렸다.

지난 9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5.1이닝을 소화하면서 프로에서 첫 5회를 넘겼던 김유신은 맞춰 잡는 피칭으로 더 많은 이닝에 욕심을 낼 생각이다.

김유신은 “5회를 채우는 게 목표였다. 목표를 이뤄서 기쁘다.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며 “나는 삼진 잡는 투수가 아니니까 이번엔 던졌던 것처럼 수비 믿고 던지다 보면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민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삼진 욕심이 있었다. 볼넷을 내주기 보다 수비를 믿고 맞춰 잡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세밀함에 대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장점으로 꼽혔던 제구를 보여주지 못했던 김유신은 ‘완벽 제구’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제구가 약점

으로 꼽혔던 장민기는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세밀함에 신경 썼다.

김유신은 “마운드에서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타자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할 수 있던 것을 하나하나씩 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코너 코너로 잘 던지려 했던 게 오히려 좋지 않았다. 포수 가운데만 보고 던지니까 알아서 상대가 쳐왔다”고 말했다.

앞선 대결에서 상대였던 두산 유희관의 피칭을 통해서도 제구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

김유신은 “코너 코너가 아닌 높게만 안 가게 낮게 낮게 하는 컨트롤하는 모습이라서 나도 똑같이 던졌다”고 웃었다.

장민기는 2군에 내려가면서 윌리엄스 감독에게 ‘제구’ 숙제를 받았다.

장민기는 “자신감과 제구 감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제구를 잡으려고 정신 상태부터 바꿨다”며 “고교시절은 물론 프로까지 영상을 다 찾아보고 내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를 비교했다. 야간에 새 도도 하고 생활 패턴을 다 바꿨다. 운동 패턴과 던지기 전 루틴 등 정신적인 부분부터 신경 썼다. 자신감은 마운드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구는 내려갈 때보다 잡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위기의 마운드에서 경험이라는 귀한 자산을 쌓고 있는 두 좌완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 ‘분위기 전환’

KIA 타이거즈가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KIA가 11일 LG 트윈스와 홈경기에 앞서 외야수 이창진과 우완 김재열, 좌완 장민기를 콜업했다. 그리고 지난 9일 더블헤더 특별엔트리로 복귀전에 나섰던 류지혁을 정식 엔트리에 넣었다.

KIA는 앞서 10일 사이드암 박준표, 우완 김현수, 포수 백용환, 내야수 유민상을 엔트리에 말소했다.

필승조로 역할을 했던 박준표는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 8.1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팔꿈치 통증이 겹치면서 엔트리에 말소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경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박준표가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았다. 휴식을 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김재열과 장민기가 등록됐다. 그리고 이창진도 들어올 수 있는 날짜가 돼서 등록됐다. 이창진이 돌아오면서 외야에서 활용할 자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진은 지난 4월 30일 등 투중으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준표가 빠진 불펜에서 박진

태, 이승재, 이준영, 장민기를 활용해 7회를 막은 뒤 앞선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장현식과 정해영에게 뒷문 단속 임무를 맡길 생각이다.

박진태와 장민기는 멀티 이닝도 소화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진태는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다. 장민기는 2군에서 멀티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로 따로 준비했다”며 “서재웅 코치와 이범호 총괄코치가 상황에 맞게 연습 많이 시켰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류지혁에 이어 이창진이 복귀했지만, 나지완과 최형우의 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경기 감각을 조율했던 나지완은 요구리 부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망막 이상으로 엔트리에 빠진 최형우도 일단 휴식 중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재검진을 받았을 때 망막에 다시 물이 차 있는 상황이라서 레이저 치료를 했다”며 “경과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서 며칠 더 상황을 봐야 한다.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당분간 불펜에서 대기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왼손 투수 양현종(33)이 당분간 불펜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11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한 화상 인터뷰에서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왼손 웨스 벤저민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가 저조한 성적을 남긴 채 손가락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르

자 대체 선발 1순위로 양현종이 꼽혔지만, 우드워드 감독은 “아직 비공식”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벤저민을 15일 아리하라의 빈자리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13~16일 휴스턴과의 원정 4연전 선발 등판 순서는 마이크 폴터네치~벤저민~데인 더닝~카일 김슨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현종은 지난 6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며 1실점으로 호투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장순혁·올렉, K리그2 11라운드 베스트 11 선정

결승골로 전남드래곤즈의 2위 탈환을 이끈 수비수 장순혁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K리그2 2021 11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세 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전남에서는 장순혁과 올렉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순혁은 0-0으로 맞선 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헤더로 연결하면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2호골. 경기가 그대로 전남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결승골 주인공도 됐다.

팀의 두 번째 골 상황에도 장순혁이 있었다.

후반 추가 시간 경남 지역에서 공중볼을 다루던 장순혁은 김동준과의 몸싸움 도중 크게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발로타질이 커져 나사 침착하게 경남 골대를



장순혁

올렉

가르며 승부에 췌기를 베풀었다.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하면서 팀의 무실점 승리를 완성한 올렉도 1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MVP는 멀티골을 장식한 부산아이파크 수비수 황준호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 내일 광주서 연고지 협약식

감독 김형실·수석코치 이성희
코치진·지원인력 10명 구성

광주로 연고지를 확장한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코치진 구성과 선수 선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페퍼저축은행의 초대 사령탑인 김형실(69) 감독은 이성희(54) 전 GS칼텍스-KGC인삼공사 감독을 수석코치로 내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아직 구단과 계약이 끝나지 않아 바깥으로 공개하지 못할 뿐 선수들을 지도할 코치진 조각은 마무리됐다.

최근까지 남녀 프로배구 구단에서 활동한 지도자 2명이 더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한다.

김 감독은 전력분석관 겸 훈련 트레이너, 팀장급 물리치료사 등 코치진과 지원 인력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8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기존 6개 구단에서 받은 구단별 보호선수 명단을 살펴 어떤 선수를 뽑아올 것인지도 대략 방침을 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구단별 보호선수 9명을 제외하고 1명씩을 선발할 수 있다.

김 감독은 “각 팀의 주전에 가려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을 데려올 생각”이라며 “현재 5명을 이미 추렸다”고 소개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는 지역 배구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로 정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이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훈련은 수도권 경기도 용인에서 한다.

김 감독은 “신갑에서 가까운 한화생명 연수원을 연습장으로 계약하고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를 호명하는 것으로 신생팀 감독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 김 감독은 13일 광주로 내려가 페퍼저축은행과 광주시의

연고지 협약식에 참석한다.

김 감독은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 확정을 계기로 지역 유소년 배구팀 창단을 요청해 여자 배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며 “선수단 구성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신생팀답게 밝고 발랄한 배구로 여자 배구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연합뉴스